

Ciba, 폴리머 착색안료 안전성 인증

FDA 승인으로 일반 마감재 플라스틱부터 식품 포장재까지 사용 가능

합성섬유와 다양한 범위의 일반 마감재 플라스틱에 적합한 Quinacridone 안료인 <Ciba CROMOPHTAL Pink PT>가 식품 포장재의 착색제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.

Ciba Specialty Chemicals은 12월4일 <CROMOPHTAL Pink PT>가 미국 FDA로부터 Food Contact에 관한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다.

<CROMOPHTAL Pink PT>는 FDA 웹 사이트 FCN #340에서 “모든 폴리머의 착색제로, 안료의 함량을 0.5%까지 사용 가능하며, 모든 식품형태의 포장에 사용 가능(사용 온도는 A에서 H)”이라고 명시됐다.

Ciba Specialty Chemicals의 Coating Effects 사업부 글로벌 책임자인 Herman Angerer 씨는 “다양한 용도에 대한 적합성과 뛰어난 물성으로 인해 <CROMOPHTAL Pink PT>는 합성섬유와 플라스틱산업에 새 전기를 마련했으며, 제품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어 공정이 손쉬울 뿐 아니라 식품 관련사용에 적법하게 됨에 따라 Pink 분야의 최고로 손색이 없게 됐다”고 강조했다.

<CROMOPHTAL Pink PT>는 우수한 착색력과 더불어 분산성과 제반 물성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. 합성섬유 중에서는 PP Fiber나 PES Fiber에 탁월하며, 플라스틱 분야에서도 폴리올레핀, 연·경질 PVC, Engineering Plastic, Styrene, 고무 및 폴리우레탄에 적합하다.

도 소량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하며, 특히 폴리올레핀이나 PVC에서 뛰어난 색상 보정용으로, 마감재 용도로는 자동차 장식용 섬유와 부품, 카펫, 식품 포장재, 장난감, 정원용 가구, 주방 자재 및 모든 옥내·외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2/05>